正經穴 中 脈動處와 그 穴位의 同異에 對한 硏究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 自然藥材科學科
趙學俊* · 李平宰

Study On The Same And Different Locations of Acupoints on Puls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 Natural Medicine Resources, Semyung University
Jo, Hak-Jun · Lee, Pyeong-Jae

Objectives : To consider same or not the positions of acupoints on the meridian in the old acupuncture books.

Methods : On the basis of old acu-books, We count the number of acupoints that are on pulse. Thru the three books-『Yijongkumkam(醫宗金鑑)』,『Chimkuhak 1st(鍼灸學-上)』, Kyunghyulhakchongseo(經穴學叢書)』-We Compared the way of positioning of acupoints, also did on the location of acupoints, vein, vascular system, around the acupoints, based on the anatomical structures(esp. artery)

Results : On the basis of old acu-books, the number of acupoints(only in the twelve meridian) on the pulse is 35, and the number of points not in the old books but on the pulse is 6, sum is 41 points. Comparion from Sambukuhu consultation method(三部九候診法) in『Somun(素問)』, Some points, Taeyang(太陽, not in the twelve meridian), Yimun(耳門) and Koryo(巨髎, Yimun and Koryo are in) are on pulse. Like Chonbu(天府) and Hyupbaek(俠白), We can feel the pulse on ulna side of biceps muscle, noton radial side. Shikdu(食竇) was described as on pulse in the 『Chimkushimbopyokyul(鍼灸心法要訣)』, but we could hardly feel it.

Conclusions : It'll be right to add the Yimun(耳門) and Koryo(巨髎) to the points on pulse, of course two points are not in the twelve meridian. We must take the points Chonbu(天府) and Hyupbaek(俠白), on ulna side of biceps muscle. Shikdu(食竇) must be excepted, because we cannot feel the pulse in consultation.

Key Words : Locations of Acupoints on Pulse, Chonbu(天府) and Hyupbaek(俠白), Shikdu(食竇), Yimun(耳門), Koryo(巨髎)

Ⅰ. 序 論

經穴의 바른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醫學入門』에 의하면 "반드시 먼저 왼손으로 침을 놓는 곳의 滎, 兪를 압박하고 누른다. 陽穴은 骨側의 陷凹處로서 누르면 저리고 마비되는 곳이 眞穴이고 陰穴은 누르면 脈動이 손에 應하는 곳이 眞穴이다."[1]라고 하였다.

中國의 湖南電子音像出版社에서 제작 출판한『中

* 교신저자 : 조학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43-649-1347, johohun@kornet.net

www.kci.go.kr

和醫典 CD』[2]에 실려 있는 鍼灸에 대한 서적은 대략 50여종에 달한다. 그 중에서 循行歌가 있는 서적은『鍼灸大全』,『凌門傳授銅人指穴』,『楊敬齋鍼灸全書』,『針灸聚英』,『鍼灸大成』,『刺灸心法要訣』,『經脈圖考』의 7종이고, 經穴歌가 있는 서적은『鍼灸大全』,『凌門傳授銅人指穴』,『鍼灸神書』,『金針秘傳』,『經絡匯編』,『經絡考』,『中西匯參銅人圖說』,『經脈圖考』,『楊敬齋鍼灸全書』,『針灸聚英』,『十四經發揮』,『刺灸心法要訣』,『靈樞經脈翼』,『鍼灸大成』,『類經圖翼』,『醫學入門』,『鍼灸大成』의 17종이다.

최근 韓中日 三國이 서로 學術을 교류하면서 各國에서 사용하는 穴位가 다른 現況을 인식하여 單一化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國內에서는 穴位의 同異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正經穴 중에 脈動處가 기재되어 있는 鍼灸文獻을 근거로 穴位의 同異에 대한 연구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古來의 鍼灸書籍에 기재된 正經穴 중에 脈動하는 穴位 및 原穴을 찾아서 그 개수를 세고, 주로『醫宗金鑑』의 穴法과『鍼灸學(上)』,『經穴學叢書』등 현대의 鍼灸書籍에 기재된 取穴 位置 및 해당 穴位의 주변 血管과『The Ciba Collection』,『Gray's Anatomy』,『解剖學』등의 血管系의 解剖學的 構造를 근거로 그 取穴 位置의 同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古來의 鍼灸書籍에 기재된 經穴의 脈動處의 위치와 현재 常用하는 經穴의 위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손으로 눌러서 脈動을 느낄 때 靜脈보다는 動脈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脈動하는 經穴은 動脈과 연관하여 論하기로 한다.

1. 中府-肺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中府在任脈中行華蓋穴旁, 直開去六寸, 乳上三肋間陷中, **動脈應手**, 仰而取之, 是其穴也."[3]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胸部上外方 任脈 兩傍 各6寸, 第1·2肋骨間外緣, 烏喙突起近處"[4]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上外側의 腋窩動脈·靜脈, 胸肩峰動·靜脈"[5]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中府의 脈動處는 그림1과 對照하면 腋窩動脈(Axillary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雲門-肺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上直行一寸六分, 在手陽明大腸經巨骨之下陷中, **動脈應手**, 擧臂取之, 雲門穴也."[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在鎖骨下外端氣穴傍2寸 動脈應手處"[7]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腋窩動·靜脈, 鎖骨下動·靜脈"[8]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中府의 脈動處는 그림1과 對照하면 腋窩動脈(Axillary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天府-肺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雲門穴下循臑內, 腋下三寸**動脈陷中**, 以鼻尖點墨取之, 天府穴

1)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521.
2) 裘沛然.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4) 鍼灸經穴學教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2.
5) 鍼灸經穴學教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2.
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7) 鍼灸經穴學教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4.
8) 鍼灸經穴學教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www.kci.go.kr

也."[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腋下前 橫紋頭에서 尺澤穴까지 9寸의 骨度法으로 腋下 3寸이며 上腕二頭筋 中에 취한다."[10]라고 하였다.『經穴學叢書』에 "前側 腋窩橫紋頭의 下 3寸. 上腕二頭筋의 外側緣"[11]이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上腕動·靜脈, 撓側皮靜脈"[12]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天府의 脈動處는 그림 1[13]과 對照하면 上腕動脈(Brachio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上腕二頭筋 中'이나 '上腕二頭筋의 外側緣'에서 取하는 現代의 取穴과 전혀 다르다.**

4. 俠白-肺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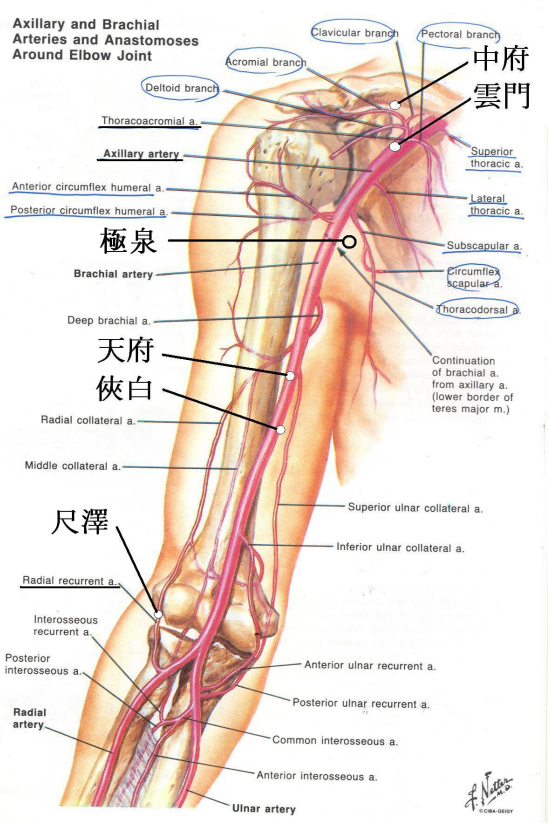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天府穴下行肘中, 約紋上去五寸**動脈中**, 俠白穴也."[14]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腋窩 前側 橫紋頭 下 4촌, 尺澤穴 上 5寸으로 上腕二頭筋腱의 撓側에서 取한다."[15]라고 하였다.『經穴學叢書』에 "天府下 1寸이며 上腕二頭筋의 外緣이 갈라진 곳에 해당하는 곳을 取한다."[16]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上腕動·靜脈, 撓側皮靜脈"[17]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俠白의 脈動處는 그림 1과 對照하면 上腕動脈(Brachio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上腕二頭筋腱의 撓側'이나 '上腕二頭筋의 外緣이 갈라진 곳'에서 取하는 現代의 取穴과 전혀 다르다.**



【그림 1】腋窩部 및 上腕部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5. 尺澤-肺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俠白穴下行肘中, 約紋上屈肘橫紋筋骨罅中, **動脈應手**, 尺澤穴也."[18]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腋窩橫紋 上 撓側의 上腕二頭筋에 있다."[19]라고 하였다.

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1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80.
1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13)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vol.8.). 1987. p.41.
14)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5)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6.
16)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82.
1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6.
18)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9)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7.

www.kci.go.kr

③ 血管:『經穴學叢書』에 "撓側反回動·靜脈의 分支와 撓側皮靜脈이 있다."[20]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尺澤의 脈動處는 그림1과 對照해 보면 撓側反回動脈(Radial recurrent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太淵(原穴)-肺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經渠穴內循手掌後陷中, 太淵穴也."[21]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腕關節 上 5分 撓骨側 動脈應手處."[22]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撓骨動·靜脈. 橈骨動脈搏動處"[23]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太淵의 穴位는 그림2[24]와 對照하면 撓骨動脈(Rad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太淵은 肺經의 原穴이다. 黃龍祥에 의하면 "12原穴은 또한 진맥부위기이도 하여…… 十二經動脈 아래에 일일이 原穴을 수록하고 있다."[25]라고 하였다. 따라서 原穴 그 자체가 脈動處를 의미하므로 그 取穴의 내용에서 '動脈應手' 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본 硏究에서 脈動處로 간주하였다.

7. 合谷(原穴)-大腸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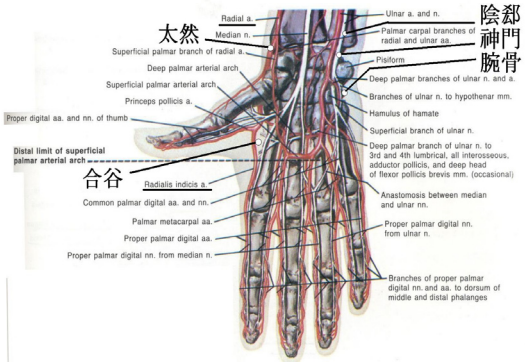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三間穴循行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合谷穴也."[2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제1 中手骨과 제2 中手骨의 手背部 岐骨間에 있다."[27]라고 하였다.

③ 血管:『經穴學叢書』에 "橈骨動脈이 手背로부터 手掌으로 관통되어 있다."[28]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合谷의 穴位는 그림 2와 對照하면 撓骨示指動脈(Radialis indicis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手掌部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8. 地倉-胃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巨髎下行, 俠口吻旁四分外許, **近下微有動脈**, 地倉穴也."[2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입을 다물고 兩口角 傍 4分에 取한다. 鼻脣口 內側에 있다."[30]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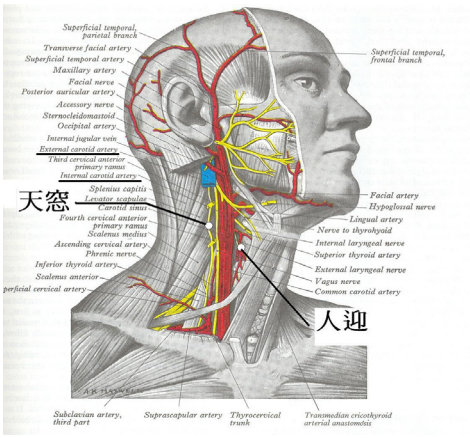
③ 血管:『鍼灸學(上)』에 "上脣動脈과 下脣動脈의 接合部"[31]라고 하였다.

【小考】

20)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84.
21)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2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7.
2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7.
24)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vol.8.). 1987. p.59.
25)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292.
2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7.
2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23.
28)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104.
2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9.
3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2.
3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2.

www.kci.go.kr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地倉의 穴位는 그림 3[32]과 對照하면 上脣動脈(Superior labial a.)과 下脣動脈(Inferior lab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頸部의 動脈(『Gray's Anatomy』)

9. 大迎-胃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地倉行腮頷下前一寸三分, **骨陷中動脈**, 大迎穴也."[33]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下顎骨 隅角의 前 1寸 3分으로 咬筋附着 前緣에 取한다."[34]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顔面動脈"[35]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大迎의 穴位는 그림3과 對照하면 顔面動脈(Fac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下關-胃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頰車上行, **耳前動脈**, 側臥合口有空取之, 下關穴也."[3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頰骨弓 下緣의 耳下前部로 開口則閉하고 緊閉則凹陷部가 出現하는 곳에 취한다."[37]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顔面橫動脈"[38]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下關의 穴位는 그림 3과 對照하여 보면 顔面橫動脈(Transverse fac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 人迎-胃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頭維下行, 頸下俠結喉旁一寸五分, **大動脈應手**, 伸頭取之, 人迎穴也."[3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結喉(甲狀軟骨) 兩傍에서 總頸動脈의 搏動處에서 취한다. 胸鎖乳突筋 前緣으로 甲狀軟骨 兩傍 1寸 6分에 取한다."[40]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上甲狀腺動脈, 總頸動脈幹. 總頸動脈 搏動處"[41]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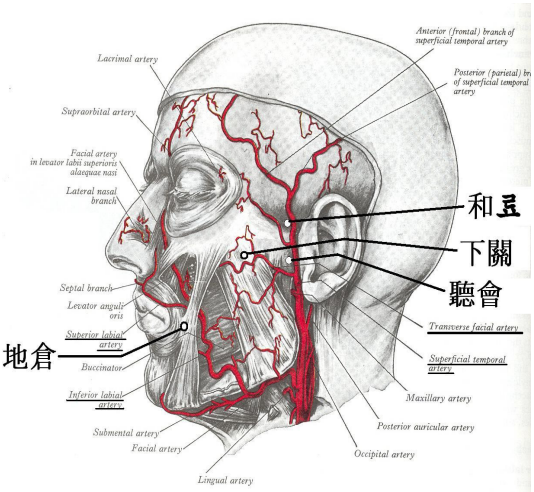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人迎의 穴位는 그림 4[42]와 對照하면 總頸動脈幹(Common carotid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氣街(氣衝)-胃經

32)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38.
33)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9.
3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3.
35)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4.
3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9.
3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5.
3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5.
3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9.
4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8.
4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8.
42)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35.

www.kci.go.kr



【그림 4】顔面部의 動脈(『Gray's Anatomy』)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歸來下行, 在腿班中有肉核, 名曰鼠溪, 直上一寸, **動脈應手**, 亦旁開中行二寸, 氣街穴也."[43]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曲骨穴 兩傍 2寸, 歸來穴 下 1寸, 橫骨穴 外傍 1寸5分으로 動脈應手處에 取穴"[44]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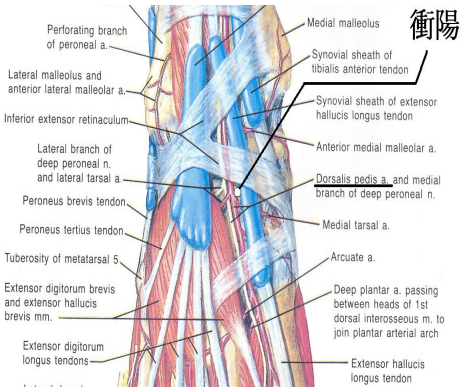
③ 血管: 『鍼灸學(上)』에 "下腹壁動脈. 股動脈搏動應手部"[45]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氣街의 穴位는 그림 5[46]와 對照하면 대퇴동맥(Femoral a.)의 분지인 下腹壁動脈(deep epigastric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衝陽(原穴)-胃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解溪下行足跗上, 即腳面也, **高骨間動脈**, 衝陽穴也."[47]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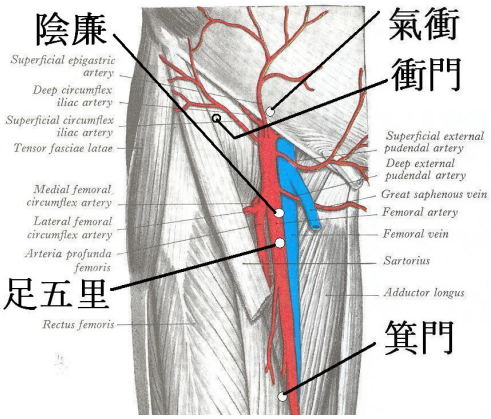
【그림 5】足背部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足跗上 5寸으로 第2 中足骨과 第3 中足骨間背面에 取穴하며 動脈躁動處 陷中에 취한다. 陷谷穴 上傍 3寸"[48]이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足背動脈網. 足背動脈의 搏動應手處"[49]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衝陽의 穴位는 그림 6[50]과 對照하면 足背動脈網(Dorsalis pedis a.)에 해



【그림 6】大腿部의 動脈(『Gray's Anatomy』)

43)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0.
4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76.
45)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76.
46)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84.
47)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0.
4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89.
49)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89.
50)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vol.8). 1987. p.111,

www.kci.go.kr

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太白(原穴)-脾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大都行足大趾後內側, 內踝前核骨下, 赤白肉際陷中, 太白穴也."[51]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足拇趾 內側으로 足拇趾 中足骨과 基節骨의 關節部에서 後傍에서 赤白肉際에 取한다."[52]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脛側足底動脈"[53]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太白의 穴位는 그림 7[54]과 對照하면 足底中足骨動脈의 足拇趾 分支(Digital branch of 1st plantar metatars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足底部의 動脈(『Gray's Anatomy』)

15. 箕門-脾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血海上行, 在魚腹上越兩筋間, 陰股內廉, **動脈應手**, 不禁重按, 箕門穴也."[55]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膝蓋骨 內緣上 8寸으로 縫工筋 부위에서 取한다."[56]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大腿動·靜脈"[57]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箕門의 穴位는 그림 7과 對照하면 大腿動脈(Fem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6. 衝門-脾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橫骨兩端 **約紋中動脈**, 去腹中行旁開三寸半, 衝門穴也."[58]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曲骨穴 兩傍 各4寸, 大橫穴 下 5寸, 橫骨穴 外傍 3寸5分, 氣衝穴 外傍 2寸, 急脈穴 外傍 1寸5分, 府舍穴 下 7分에서 取한다."[59]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下腹壁動脈, 淺腹壁動脈"[60]이라고 하였고,『經穴學叢書』에서 "大腿動脈의 搏動을 感知하는 곳"[61]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衝門의 穴位는 그림 7과 對照하면 大腿動脈(Fem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1)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2.
5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01.
5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01.
54)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90.
55)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2.
56)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0.
5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0.
58)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2.
59)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1.
6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1.
6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240.

www.kci.go.kr

17. 食竇-脾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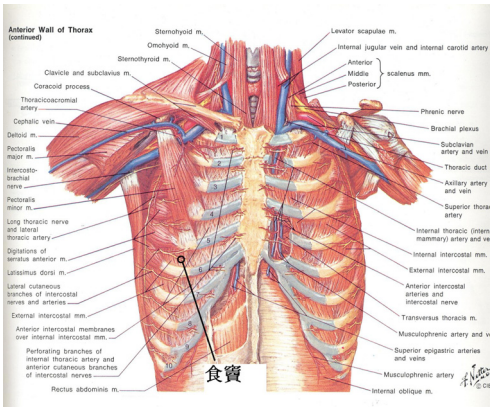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腹哀上行三寸, 或從乳上三肋間, **動脈應手處**, 往下六寸四分, 去胸中行旁開六寸, 擧臂取之, 食竇穴也."[6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上膊을 들고 第5肋骨과 第6肋骨間으로 中庭穴 兩傍 各 6寸에서 取한다."[63]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肋間動靜脈, 內乳動脈"[64]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食竇의 穴位는 그림8[65]과 對照하면 肋間動脈(Intercostal a.)나 內乳動脈(Internal mammary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 구조로 살펴보면 觸手할 때에 손에 應할 만한 혈관으로 보기에 어렵다.



【그림 8】前胸部 外壁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18. 極泉-心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極泉穴, 在腋下臂內筋間動脈引胸中, 是其穴也."[6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腋窩橫紋頭 前端(大胸筋 停止部)에서 약 5分 들어간 陷凹處. 上膊을 들고 腋窩中央部 前方의 大胸筋과 後方의 廣背筋間으로 腋窩中央에 腋動脈 內側에서 取한다."[67]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腋窩動·靜脈"[68]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極泉의 穴位는 그림1과 對照하면 腋窩動脈(Axillary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 陰郄-心經

① 古來의 穴法:『凌門傳授銅人指穴』에 "陰郄五分取動脈."[69]이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腕關節 上 5分으로 尺骨 莖狀突起 內側端에 掌側手根屈筋 內部이며, 掌側手根靭帶와 短掌筋 間에 取한다."[70]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尺骨動·靜脈"[71]이라고 하였다.

【小考】

『凌門傳授銅人指穴』에 기재된 陰郄의 穴位는 그림2와 對照하면 尺骨動脈(Uln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 神門(原穴)-心經

6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2.
6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5.
6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15.
65)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vol.7.). 1987. p.7.
6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4.
6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24.
6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24.
6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4.
7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29.
7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29.

www.kci.go.kr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陰郄行掌後銳骨端陷中, 神門穴也."[7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腕關節과 尺骨莖狀突起 前內側에 手根橫靭帶와 掌側手根靭帶의 撓側에서 取한다."[73]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尺骨動·靜脈"[74]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神門의 穴位는 그림 2와 對照하면 尺骨動脈(Uln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1. 腕骨(原穴)-小腸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後溪上行, 手掌外側, 腕前起骨下罅縫陷中, 腕骨穴也."[75]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手 第5掌骨에 有鉤骨과 頭狀骨 間으로 背側手根靭帶에서 赤白肉際에 取한다. 掌後外側(尺側) 腕高骨前 陷中에서 取한다."[76]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尺骨動脈, 尺側皮靜脈"[77]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腕骨의 穴位는 그림 2와 對照하면 尺骨動脈(Uln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天窓-小腸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肩中俞上行, 頸大筋前曲, **頰下動脈應手陷中**, 天窓穴也."[78]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胸鎖乳突筋 前緣 下顎隅角 下로 扶突穴 外傍 1寸5分"[79]이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外頸動靜脈, 內頸動脈, 頸橫動脈"[80]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天窓의 穴位는 그림 4와 對照하면 外頸動脈(External carotid a.)과 內頸動脈(Internal carotid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委中-膀胱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委陽下行, 膕中央 **約紋動脈陷中**, 令人仰頰至地, 伏臥取之, 委中穴也."[81]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膝窩橫紋 中央으로 動脈應手處"[82]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膝窩動脈. 膝窩動脈 搏動應手處"[83]라고 하였다.

【小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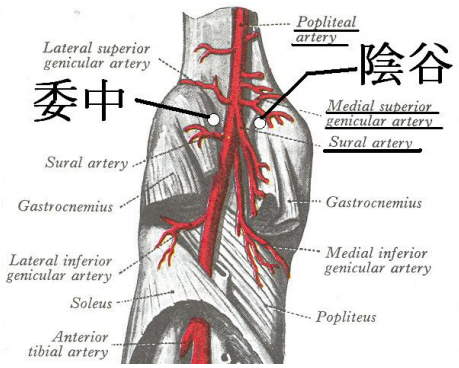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委中의 穴位는 그림 9[84]와 對照하면 膝窩動脈(Poplite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4. 崑崙-膀胱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附陽下行, 足外踝後五分, 跟骨上陷中, **細動脈應手**, 崑崙穴也

7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4.
7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30.
7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30.
75)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6.
76)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42.
7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42.
78)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6.
79)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52.
8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53.
81)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9.
8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03.
8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03.
84)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87.

www.kci.go.kr



【그림 9】 膕部의 動脈(『Gray's Anat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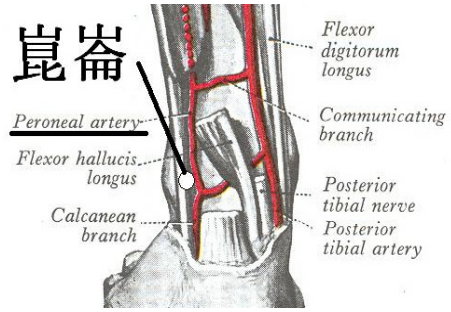
."[85]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足外踝後 跟腱前 陷中"[86]이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腓骨動脈"[87]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崑崙의 穴位는 그림 10[88]과 對照하면 腓骨動脈(Perone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足跟部의 動脈(『Gray's Anatomy』[88])

85)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9.
86)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20.
8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21.
88)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87.

25. 京骨(原穴)-膀胱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金門行足外側大骨下, 赤白肉際陷中, 京骨穴也."[8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第5 中足骨 後部 澎大部의 下緣에 取한다."[90]라고 하였다.

③ 血管: 『經穴學叢書』에 "外側足底動·靜脈이 있다."[91]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京骨의 穴位는 그림 7과 對照하면 外側足底動脈(Lateral plant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6. 太谿(原穴)-腎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然谷行足內踝後五分, **跟骨上動脈陷中**, 太溪穴也."[9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足內踝尖과 跟腱後緣의 사이에 取한다."[93]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後脛骨動·靜脈, 小伏在靜脈. 後脛骨動脈 應手處"[94]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太谿의 穴位는 그림 11[95]과 對照하면 後脛骨動脈(Posterior tib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7. 復溜-腎經

① 古來의 穴法: 『醫學入門』에 "內踝後上二寸動脈中, 復溜穴也."[96]라고 하였다.

8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9.
9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25.
9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428.
9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3.
9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39.
9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39.
95)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vol.8.). 1987.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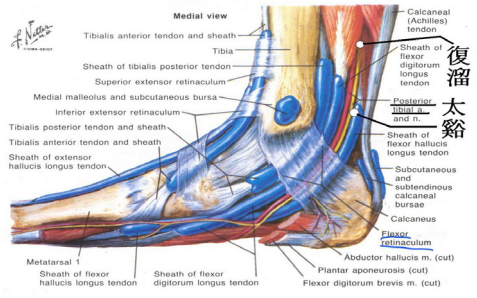
www.kci.go.kr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長拇趾屈筋과 아킬레스腱 間에 취하는데 足內踝 直上 2寸으로 橫列로 取한다."[97]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後脛骨動·靜脈, 小伏在靜脈"[98]이라고 하였다.

【小考】

『醫學入門』에 기재된 復溜의 穴位는 그림 11과 對照하면 後脛骨動脈(Posterior tib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足內側部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28. 陰谷-腎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築賓上行, 膝下內輔骨後, 大筋下小筋上, 按之應手, 屈膝得之, 陰谷穴也."[9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膝窩橫紋의 內側, 縫工筋下 半膜樣筋上으로 脛骨內踝 後方"[100]이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內側腓腹動·靜脈, 內側上膝動脈, 膝窩動脈, 下行上膝動脈, 大伏在靜脈"[101]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陰谷의 穴位는 그림 10과 對照하면 內側腓腹動脈(Medial sural a.), 內側上膝動脈(Medial superior genicular a.), 膝窩動脈(Medial poplite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9. 曲澤-心包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天泉穴下行, 肘內廉大筋內側, 橫紋頭下陷中動脈, 曲澤穴也."[10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肘關節의 圓回內筋과 上腕二頭筋腱膜 間에 取한다."[103]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上腕動·靜脈, 尺側皮靜脈, 正中前上腕動脈. 上腕動脈의 搏動應手處"[104]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曲澤의 穴位는 그림 12[105]와 對照하면 上腕動脈(Brach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 大陵(原穴)-心包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內關穴下行, 掌後骨下橫紋中兩筋間陷中, 大陵穴也."[10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腕關節에 있는 掌側手根靭帶 中央으로 撓側手根屈筋과 手掌筋 間의 凹陷處에 취한다."[107]라고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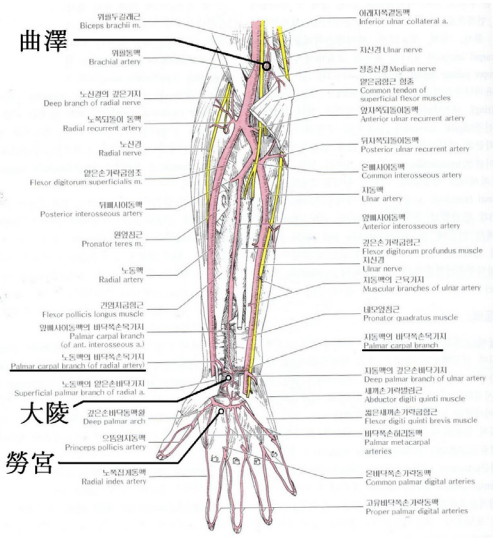
96)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286.
9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43.
9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44.
9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3.
10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46.
10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47.
10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0.
10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70.
10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71.
105) 大韓解剖學會. 解剖學. 서울. 고려의학. 1999. p.604.
10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0.
10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75.

www.kci.go.kr

③ 血管: 『經穴學叢書』에 "掌側手根動·靜脈網이 있다."[108]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大陵의 穴位는 그림 12와 對照하면 요골동맥(Radial a.)의 掌側手根動脈網(Palmar carpal branch)와 척골동맥(Ulnar a.)의 掌側手根動脈網(Palmar carpal branc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上肢部 掌側의 動脈(『解剖學』)

31. 勞宮-心包經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大陵穴下行, **掌中央動脈**, 屈無名指取之, 勞宮穴也."[10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握拳하고 中指와 食指가 手掌에 닿는 부위의 中點에 取한다."[110]라고 하였다.

③ 血管: 『鍼灸學(上)』에 "尺骨動脈의 深掌側支, 總掌側指動脈, 掌側中手靜脈"[111]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勞宮의 穴位는 그림 12와 對照하면 尺骨動脈의 深掌側支(Deep palmar branch of uln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2. 陽池(原穴)-三焦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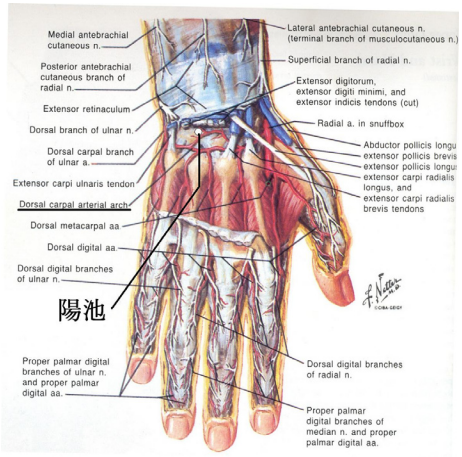
① 古來의 穴法: 『刺灸心法要訣』에 "從中渚由四指本節直上, 行手表腕上陷中, 陽池穴也."[11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 『鍼灸學(上)』에 "腕關節의 背面 中央部 凹陷處. 第4 中手骨의 後緣 腕關節背側에 取한다."[113]라고 하였다.

③ 血管: 『經穴學叢書』에 "背側手根靜脈網, 背側手根動脈이 있다."[114]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陽池의 穴位는 그림 13[115]과 對照해서 보면 背側手根動脈弓(Dorsal carpal arterial arc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手背部의 動脈(『The Ciba Collection』)

108)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490.
10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0.
11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77.
11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77.
11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5.
11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588.
114)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506.
115)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vol.8.). 1987. p.58.

www.kci.go.kr

33. 和髎-三焦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耳門行耳前, **鋭髮下橫動脈中**, 和髎穴也(兌髮下即鬢角也)."[116] 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鸛骨弓 上緣으로 耳前方 鋭髮後下緣에 淺側頭動脈應手處"[117]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淺側頭動·靜脈, 中側頭動脈"[118]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和髎의 穴位는 그림 3과 對照해서 보면 淺側頭動脈(Superficial temp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4. 聽會-膽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瞳子髎下外斜行, 耳前起骨上面, **下一寸耳珠下動脈宛宛中**, 開口有空, 側臥張口取之, 聽會穴也."[11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耳珠의 前下方으로 耳珠切痕 前方에 取하는데 淺側頭動脈의 搏動이 應手되는 곳이다."[120]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淺側頭動·靜脈, 中側頭動脈, 中硬膜動靜脈, 顔面橫動脈, 外頸動脈, 下顎後靜脈"[121]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聽會의 穴位는 그림 3과 對照해서 보면 淺側頭動脈(Superficial temp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6.
11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05.
11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05.
11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7.
12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17.
121)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17.

35. 懸鐘-膽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陽輔下行三寸, **外踝骨尖內動脈中**, 尋按取之, 懸鍾穴也."[12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3寸으로 外踝上에서 腓骨筋에 取한다."[123]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前脛骨動·靜脈"[124]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懸鍾의 穴位는 그림 14[125]와 對照하면 前脛骨動脈(Anterior tibi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6. 丘墟(原穴)-膽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懸鍾行外踝下, 斜前陷中, 丘墟穴也."[126]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足背의 立方骨과 巨骨 中間에 取한다. 足外踝前方 1寸 陷中"[127]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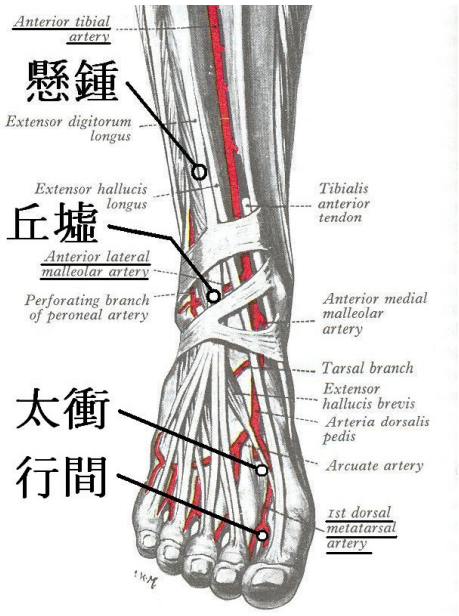
③ 血管:『鍼灸學(上)』에 "外側前內踝動脈, 小伏在靜脈"[128]이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丘墟의 穴位는 그림 14와 對照하면 外側前內踝動脈(Lateral anterior malleolar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7.
12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53.
12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53.
125)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88.
12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87.
12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53.
12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54.

www.kci.go.kr



【그림 14】足脛部 前側의 動脈(『Gray's Anatomy』)

37. 行間-肝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大敦上行足大指次指歧骨縫間, **動脈應手陷中**, 行間穴也."[129]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足拇趾와 足第2趾와의 岐骨間으로 足背面의 分岐部."[130]라고 하였다.

③ 血管:『經穴學叢書』에 "足背靜脈網, 第1背側中足動脈이 있다."[131]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의 行間의 穴位는 그림 14와 對照하면 背側中足動脈(1st metatars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8. 太衝(原穴)-肝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行間上行二寸許, 足跗間動脈應手陷中, 太衝穴也."[132]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足第1,2趾 岐骨間 本節後"[133]라고 하였다.

③ 血管:『經穴學叢書』에 "足背靜脈網, 第1背側中足動脈이 있다."[134]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의 太衝의 穴位는 그림 14와 對照하면 背側中足動脈(1st metatars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足五里-肝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陰包上行, 在足陽明胃經之氣沖穴下三寸, 陰股中動脈應手, 五里穴也."[135]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大腿內側 鼠蹊部로 氣衝穴 下 3寸處"[136]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內側大腿回旋動脈. 股動脈搏動을 느끼는 部位"[137]라고 하였다.

【小考】

『刺灸心法要訣』의 陰廉의 穴位는 그림5와 對照하면 內側大腿回旋動脈(Medial circumflex fem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0. 陰廉-肝經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五里上行半矢下, 斜里三分, 直上氣衝下二寸, **動脈陷中**, 陰廉穴也."[138]라고 하였다.

12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90.
13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66.
13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608.
13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90.
13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67.
134)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610.
135)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90.
136)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74.
13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74.
138)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90.

www.kci.go.kr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曲骨穴 兩傍 各2寸에 있는 氣衝穴 下 2寸으로 長內轉筋에서 取한다.”[139]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內側大腿回旋動脈”[140]이라고 하였다.

【小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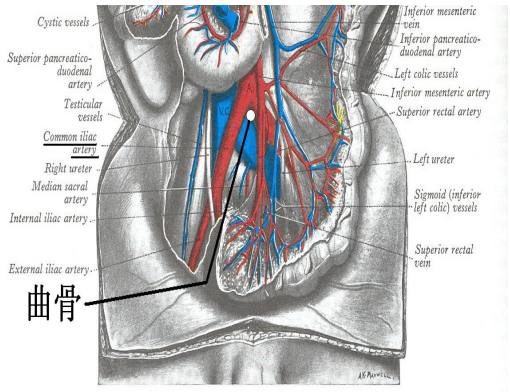
『刺灸心法要訣』의 陰廉의 穴位는 그림 5와 對照하면 內側大腿回旋動脈(Medial circumflex femor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1. 曲骨-任脈

① 古來의 穴法:『刺灸心法要訣』에 “從會陰上行, 橫骨上毛際陷中, 動脈應手, 臍下五寸, 曲骨穴也.”[141]라고 하였다.

② 現代의 取穴:『鍼灸學(上)』에 “恥骨結合上緣上方의 凹陷處”[142]라고 하였다.

③ 血管:『鍼灸學(上)』에 “外陰部動·靜脈”[143]이라고 하였다.



【그림 15】腹部의 動脈(『Gray's Anatomy』)

【小考】

『刺灸心法要訣』의 曲骨의 穴位는 『鍼灸學(上)』에는 外陰部動脈(External pudendal a.)이라고 하였으나, 그림 15[144]와 對照하면 觸診上 脈動處에 해당하는 總腸動脈(Common iliac a.)이라고 볼 수 있다.

Ⅲ. 考 察

이상의 내용을 통해 正經穴 中 脈動處와 그 穴位의 同異에 對해 다음의 6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下記의 書籍에 기재된 鍼灸文獻을 근거로 하면 脈動處에 있는 正經穴은 모두 41개이다.

古來의 鍼灸書籍에는 經脈의 循行과 經穴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初學者들이 알기 편리하게 經穴歌賦를 만들어서 기재하고 있다. 그 經穴歌賦는 주로 循行歌, 經穴歌, 分寸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中國의 湖南電子音像出版社에서 제작 출판한 『中華醫典 CD』[145]에 실려 있는 鍼灸書籍은 대략 50여 종에 達한다. 그 중에서 『鍼灸大全』, 『凌門傳授銅人指穴』, 『楊敬齋鍼灸全書』, 『針灸聚英』, 『鍼灸大成』, 『刺灸心法要訣』, 『經脈圖考』, 『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楊敬齋鍼灸全書』, 『十四經發揮』, 『靈樞經脈翼』, 『類經圖翼』, 『醫學入門』[146]의 17종에서 循行歌, 經穴歌, 分寸歌의 經穴歌賦가 기재되어 있다.

上記의 書籍에 기재된 經穴歌, 分寸歌 등을 근거로 經穴 중에 脈動하는 穴位 및 原穴을 다음과 같이 찾았다.

① 肺經에는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尺澤, 太淵(原穴)의 6개가 있다.

② 大腸經에는 合谷(原穴) 1개가 있다.

③ 胃經에는 地倉, 大迎, 下關, 人迎, 氣衝(氣街),

139)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75.
14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75.
141)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92.
14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719.
14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720.
144)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p.774.
145) 裘沛然.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6)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www.kci.go.kr

衝陽(原穴)의 6개가 있다.

④ 脾經에는 太白(原穴), 箕門, 衝門, 食竇의 4개가 있다.

⑤ 心經에는 極泉, 陰郄, 神門(原穴)의 3개가 있다.

⑥ 小腸經에는 腕骨(原穴), 天窓의 2개가 있다.

⑦ 膀胱經에는 委中, 崑崙, 京骨(原穴)의 3개가 있다.

⑧ 腎經에는 太谿(原穴), 復溜, 陰谷의 3개가 있다.

⑨ 心包經에는 曲澤, 大陵(原穴), 勞宮의 3개가 있다.

⑩ 三焦經에는 陽池(原穴), 和髎의 2개가 있다.

⑪ 膽經에는 聽會, 懸鐘, 丘墟(原穴)의 3개가 있다.

⑫ 肝經에는 行間, 太衝(原穴), 足五里, 陰廉의 4개가 있다.

⑬ 任脈에는 曲骨 1개가 있다.

⑭ 督脈에는 없다.

이상 41개의 穴位에 대해서 古來의 鍼灸書籍 중에서 특히 『醫宗金鑑』의 穴法과 『鍼灸學(上)』, 『經穴學叢書』 등 현대의 鍼灸書籍에 기재된 取穴 및 그 주변의 血管과 『The Ciba Collection』, 『Gray's Anatomy』, 『解剖學』 등의 血管系의 解剖學的 構造(특히 動脈)를 근거로 그 取穴의 同異를 살펴보았다.

『鍼灸學(上)』에 "刺鍼한 309혈 중 직접 動脈幹에 해당하는 것이 24穴이다."[147]라고 하였으나, 17종의 鍼灸文獻을 근거로 하면 脈動處에 있는 正經穴은 모두 41개였다.

이 중에는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黃龍祥[148]에 의하면 12原穴은 또한 診脈部位이기도 하며 十二經動脈 아래에 일일이 原穴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原穴 그 자체가 脈動處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脈動處를 이용한 診脈法으로는 『素問·氣交變大論』[149]에서는 歲木 太過에 衝陽이 絶하는 자, 歲火 太過에 太淵이 絶하는 자, 歲土 太過에 太谿가 絶하는 자, 歲金 太過에 太衝이 絶하는 자, 歲水 太過에 神門이 絶하는 자 등은 相剋으로 인하여 死不治한다고 하였는데, 이 穴位들은 모두 原穴에 해당한다.

따라서 原穴의 取穴에서 '動脈應手'라고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脈動處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古來의 鍼灸書籍에서 脈動處라고 언급하지 않은 6陽經의 原穴 6개를 脈動處의 總數인 41개 중에서 제외하더라도, 모두 35개의 穴이 되어 역시 『鍼灸學(上)』에서 언급한 24穴보다 많다.

둘째, 陽經 중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는 모두 17개이고, 陰經 中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는 모두 23개이며, 任脈 中에는 1개가 있다.

陽經 중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는 大腸經의 合谷(原穴) 1개, 胃經의 地倉, 大迎, 下關, 人迎, 氣衝(氣街), 衝陽(原穴)의 6개, 小腸經의 腕骨(原穴), 天窓의 2개, 膀胱經의 委中, 崑崙, 京骨(原穴)의 3개, 三焦經의 陽池(原穴), 和髎의 2개, 膽經의 聽會, 懸鐘, 丘墟(原穴)의 3개로서 모두 17개이다.

陰經 중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는 肺經의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尺澤, 太淵(原穴)의 6개, 脾經의 太白(原穴), 箕門, 衝門, 食竇의 4개, 心經의 極泉, 陰郄, 神門(原穴)의 3개, 腎經의 太谿(原穴), 復溜, 陰谷의 3개, 心包經의 曲澤, 大陵(原穴), 勞宮의 3개, 肝經의 行間, 太衝(原穴), 足五里, 陰廉의 4개로서 모두 23개이며, 이외에 任脈의 曲骨 1개가 더 있다.

『醫學入門』에 "陰穴은 누르면 脈動이 손에 應하는 곳이 眞穴이다."[150]라고 한 것에 근거할 때, 陰經 중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 24개(任脈의 曲骨穴을 포함하여 계산)는 『鍼灸學(上)』에서 언급한 24穴과 일치한다. 따라서 『鍼灸學(上)』에서 언급한 내용은 특히 41개의 正經穴의 脈動處 중에 陰經과 任脈의 穴位만을 지적한 것으로 推測된다.

셋째, 『素問·三部九候論』에서 診脈處로 지적되는 太陽穴(正經穴은 아님)과 耳門, 巨髎는 古來의 鍼灸書籍에서 '脈動處'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內經診斷學』에 의하면 "『素問·三部九候論』에 上部(頭部)에 있어서 上部上에는 兩額의 動脈(가령 太陽穴)은 頭角의 氣를 살피고, 上部中에 耳前의 動脈(가령 耳門穴)은 耳目의 氣를 살피고, 上部下에는 兩

14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252.

148)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292.

149) 尹暢烈 外 釋. 內經素問王冰注, 大田, 周珉文化社, 2004. pp.134-146.

150)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521.

www.kci.go.kr

頰의 動脈(가령 巨髎穴)은 口齒의 氣를 살핀다.

中部(手部)에 있어서 中部上에는 手太陰(가령 經渠穴)은 肺를 살피고, 中部中에는 手少陰(가령 神門穴)은 心을 살피고, 中部下에는 手陽明(가령 合谷穴)은 胸中의 氣를 살핀다.

下部(足部)에 있어서 下部上에는 足厥陰(가령 足五里, 太衝穴)은 肝을 살피고, 下部中에는 足太陰(가령 衝陽穴)은 脾(胃)를 살피고, 下部下는 足少陰(가령 太谿穴)은 腎을 살핀다."[151]라고 하였다.

이것과 비교하면 太陽穴은 正經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耳門, 巨髎는 正經의 脈動處로 지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耳門과 관련한 血管은『鍼灸學(上)』에 "淺側頭動·靜脈, 鸛骨眼窩動脈"[152]이라고 하였는데, 그림3과 對照하면 淺側頭動脈(Superficial temporal a.)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巨髎(胃經)와 관련한 血管은『鍼灸學(上)』에 "眼角動脈"[153]이라고 하였는데, 그림4와 對照하면 淺側頭動脈(Superficial temporal a.)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素問』의 三部九候 診法의 脈動處와 비교하면, 取穴上 穴位의 특징에 있어서 正經이 아닌 太陽穴과 正經인 耳門, 巨髎는 '脈動處'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넷째, 食竇는『刺灸心法要訣』에 脈動處라고 하였으나 실제 觸診時에 脈動을 느끼기가 어려우므로 正經穴 中의 脈動處로 간주하지 않아야 옳을 것이다.

『刺灸心法要訣』에 "從腹哀上行三寸, 或從乳上三肋間, **動脈應手處**, 往下六寸四分, 去胸中行旁開六寸, 擧臂取之, 食竇穴也."[154]라고 하였고, 그림8과 對照하면 肋間動脈(Intercostal a.)나 內乳動脈(Internal mammary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 구조로 살펴보면 觸手할 때에 손에 應할 만한 혈관으로 보기에 어렵다. 또한『刺灸心法要訣』이외에는 動脈應手處라고 언급한 서적은 드물다.『刺灸心法要訣』에서 動脈應手處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心臟의 搏動이 좌측에서 뚜렷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太白穴과 曲骨穴의 주변에 있는 血管은『鍼灸學(上)』에 기재된 내용과『The Ciba Collection』,『Gray's Anatomy』,『解剖學』등의 내용과 다르다.

太白의 穴位는『鍼灸學(上)』에 "足拇趾 內側으로 足拇趾 中足骨과 基節骨의 關節部에서 後傍에서 赤白肉際에 取한다."[155]라고 하고, 그 주변의 血管은『鍼灸學(上)』에 "脛側足底動脈"[156]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太白의 穴位는 그림7과 對照하면 足底中足骨動脈의 足拇趾 分支(Digital branch of 1st plantar metatarsal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曲骨의 穴位는『鍼灸學(上)』에 "恥骨結合上緣 上方의 凹陷處"[157]라고 하고, 그 주변의 血管은『鍼灸學(上)』에 "外陰部動·靜脈"[158]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 15와 對照하면 觸診上 脈動處에 해당하는 總腸動脈(Common iliac a.)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肺經의 天府穴과 俠白穴의 穴位가 古來의 鍼灸書籍과 現代의 鍼灸書籍의 내용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天府는『刺灸心法要訣』에 "從雲門穴下循臑內, 腋下三寸**動脈陷中**, 以鼻尖點墨取之, 天府穴也."[159]라고 하였다. 그러나『鍼灸學(上)』에 "腋下前 橫紋頭에서 尺澤穴까지 9寸의 骨度法으로 腋下 3寸이며 上腕二頭筋 中에 취한다."[160]라고 하고『經穴學叢書』에

151)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205-206.
152)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603.
15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51.
154)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72.
155)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01.
156)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401.
157)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719.
15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719.
159)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6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www.kci.go.kr

“前側 腋窩橫紋頭의 下 3寸. 上腕二頭筋의 外側緣”[161]이라고 하였다.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天府의 脈動處는 그 위치에 있어서 上腕動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上腕二頭筋 中’이나 ‘上腕二頭筋의 外側緣’에서 取하는 現代의 取穴과 전혀 다르다.

또한 俠白은 『刺灸心法要訣』에 “從天府穴下行肘中, 約紋上去五寸**動脈中**, 俠白穴也.”[162]라고 하였으나, 『鍼灸學(上)』에 “腋窩 前側 橫紋頭 下 4촌, 尺澤穴 上 5寸으로 上腕二頭筋腱의 撓側에서 取한다.”[163]라고 하고, 『經穴學叢書』에 “天府 下 1寸이며 上腕二頭筋의 外緣이 갈라진 곳에 해당하는 곳을 取한다.”[164]라고 하였다.

『刺灸心法要訣』에 기재된 俠白의 脈動處는 그 위치에 있어서 上腕動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上腕二頭筋腱의 撓側’이나 ‘上腕二頭筋의 外緣이 갈라진 곳’에서 取하는 現代의 取穴과 전혀 다르다.

한편 『靈樞·經脈』의 肺經의 循行에서 “從肺系橫出腋下하야 下循臑內호대 行少陰心主之前하야 下肘中하고 ……”[165]라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刺灸心法要訣』의 肺經의 循行歌에서 “肺系를 따라서 옆으로 腋下로 나오는데 가슴에서는 中府, 雲門에 이르고 臑內의 天府, 俠白을 循行하되 手少陰 心經의 脈과 手厥陰 心包經의 脈보다 앞쪽으로 行한다.”[166]라고 하였다.

『鍼灸學(上)』 등에서 이러한 『靈樞』의 내용을 근거로 天府의 위치를 “腋下 三寸 動脈”[167]에서 “腋下 3寸의 上腕二頭筋 中”[168]으로 옮겼고, 俠白의 위치를 “天府下 去肘五寸 動脈”[169]에서 “上腕二頭筋腱의 撓側”[170]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 두 곳은 모두 上腕動脈이 지나가는 循行線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앞에서 언급한 肺經의 脈이 ‘肺系로부터 옆으로 腋下로 나온다.’는 말과 부합하므로 『醫學入門』, 『醫宗金鑑』 등 古來의 鍼灸書籍의 穴位가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두 穴은 “陰經의 穴은 脈動處를 眞穴로 삼는다.”[171]라는 『醫學入門』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上腕二頭筋의 ‘外緣’이 아니라 上腕二頭筋의 ‘內緣’에서 取해야 한다.

또한 肺經의 循行線은 天府, 俠白의 穴位를 벗어나지 않도록 上腕二頭筋의 尺側(또는 內緣)을 지나가되, 『靈樞』를 근거로 한 『刺灸心法要訣』의 循行歌에서 “臑內의 天府, 俠白을 循行하되 手少陰 心經의 脈과 天泉穴이 있는 手厥陰 心包經의 脈 보다 앞쪽으로 行한다.”[172]라고 한 것에도 부합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上腕에 있는 手少陰 心經의 靑靈穴은 肘橫紋 內側上 3寸에 위치하여 上腕動脈 搏動 應手處[173]에 해당하고, 역시 上腕에 있는 手厥陰 心包經의 天泉穴은 腋窩 橫紋頭 下方 2寸에 해당하여 上腕二頭筋 內側[174]에서 取한다고 하였으므로, 天府, 俠白의 穴이 있는 肺經의 上腕의 循行線은 心經脈, 心包經脈의 노선과 일치하거나 혹은 약간 앞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結 論

古來의 鍼灸書籍과 현대의 鍼灸書籍에 기재된 正經穴 중에 脈動하는 穴位에 대해서 해당 穴位의 주변 血管을 근거로 그 取穴 位置의 同異를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正經穴 中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의 개수는 古來의 多數의 鍼灸書籍의 記錄에 의하면 모두 35개

p.305.
16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80.
16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6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6.
164)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p.82.
1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所. 1985. p.79.
166)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67)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259.
16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169)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259.
170)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6.
171)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p.521.
172)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p.1065.
173)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174)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www.kci.go.kr

이며, 脈動處로 표시되지 않은 6陽經의 原穴을 脈動處로 본다면 그것의 개수까지 포함하여 모두 41개이다.

2. 陰經 中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正經穴의 개수는 모두 23개이고 陽經 중에 脈動處에 해당하는 穴位는 모두 18개이다. 陰經 중 脈動處에 해당하는 正經穴의 개수는 任脈의 曲骨穴을 포함하여 계산하면『鍼灸學(上)』에서 언급한 24穴과 일치하므로,『鍼灸學(上)』에서의 그 개수는 陰經과 任脈의 穴位를 計數한 것으로 推測된다.

3.『素問·三部九候論』에서 기재된 三部九候 診法의 脈動處와 비교하면 正經이 아닌 太陽穴과 正經인 耳門穴, 巨髎穴도 '脈動處'로 추가해야 한다.

4. 食竇穴은『刺灸心法要訣』에 脈動處라고 하였으나 실제 觸診時에 脈動을 느끼기가 어려우므로 正經穴 中의 脈動處로 간주하지 않아야 옳다.

5. 太白穴과 曲骨穴의 주변에 있는 血管은『鍼灸學(上)』에 기재된 내용과『The Ciba Collection』,『Gray's Anatomy』,『解剖學』등의 내용과 다르다.

6.『醫學入門』에 "陰經의 穴은 脈動處를 眞穴로 삼는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肺經의 天府穴과 俠白穴은 모두 上腕二頭筋의 '外緣(撓側)'이 아니라 上腕二頭筋의 '內緣(尺側)'에서 取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肺經의 循行線도 上腕二頭筋의 '內緣(尺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상으로『醫學入門』에서 "陰穴은 누르면 脈動이 손에 應하는 곳이 眞穴이다."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주로 陰經 穴位의 同異에 대한 文獻 硏究를 하였다. 향후에는 "陽穴은 骨側의 陷凹處로서 누르면 저리고 마비되는 곳이 眞穴이다."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陽經 穴位의 同異에 대한 文獻 硏究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단행본>

1. 吳謙 等. 醫宗金鑑. 서울. 法人文化社. 2006.
2.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6.
3. 裘沛然.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5. 尹暢烈 外 釋. 內經素問王冰注. 大田. 周珉文化社. 2004.
6. 大韓解剖學會. 解剖學. 서울. 고려의학. 1999.
7.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8. 鍼灸經穴學敎室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9. Williams, Warwick, Dyson, Bannister. Gray's Aantomy. London. Churchil Livingstone. 1989.
10. Netter. The Ciba Collection, New Jersey. Ciba-Geigy Corporation. 1987.
1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86.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所. 1985.

www.kci.go.kr

www.kci.go.kr